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단순화된 인체형상의 희화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윤 호 실

논문개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발달된 사회와 다양한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욕구,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불안과 초조함을 지닌 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놓인 현대인들의 심상을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인체를 선택한 것은 욕망의 주체가 인간이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경험에서 얻어진 것들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체는 정신과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인은 인체의 단순화를 통해 인형적으로 조형화하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체험되는 현대인의 심상을 회화적(戲畫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제작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작품의 연구내용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에 관하여 서술하고, 인체의 단순화를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표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본인의 작품의 제작 방향에 대한 연구의지를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2
1. 작품의 형성 배경	2
2. 작품 표현 방법	4
1) 형태적 표현	5
2) 재료적 요소	8
3. 작품 분석	10
III. 결 론	24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구름다리, 미술품, 티크, 가변설치, 2002	10
【작품 2】 미끄러지기, 미술품, 티크, 175×45×115(cm), 2003	12
【작품 3】 부여잡기, 미술품, 90×30×173(cm), 2003	14
【작품 4】 걷기, 월넛, 미술품, 140×20×117(cm), 2002	16
【작품 5】 바라보기, 미술품, 70×16×61(cm), 2002	18
【작품 6】 설까말까, 미술품, 30×15×35(cm), 2003	20
【작품 7】 내안의 집, 가랑, 45×25×78(cm), 2002	22

I. 서론

예술은 개인적 감정과 사회적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체적 경험의 표현이며 인간 삶을 인식하는 특별한 유형으로서 본질상 인간의 의식적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 예술가는 현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자기만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존재이다. 결국 예술가는 그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철학에 혹은 정치, 사회적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인의 삶 또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라고 생각되어지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삶과의 경쟁이 시작된다. 경쟁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켰으며, 인간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희망, 소유, 불안 등을 표현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인체의 단순화와 과장을 통해서 회화적(戲畫的)²⁾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인간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심상을 외형적 형태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인간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극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고 밝은 채색과 자연의 일부인 나무라는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인간과 친근한 느낌을 주며 다른 재료에 비해 따뜻한 느낌을 준다.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과 이를 토대로 제작한 작품을 분석하고 제작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1) 양건열 편역, 『예술 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미진사, 1995, p.4

2) 장난삼아 그린 그림, 과장하여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캐리커처. 남영신 엮음, 『국어대사전』, 성인당, 2003.

Ⅱ.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본인은 '삶은 어떠한가'라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의 욕심은 시작된다고 보며 내안에 내재한 욕심으로부터 현 생활을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인간의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욕망³⁾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간이 갖고자하는 욕심은 자신이 존재하는 한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것은 미래나 현재에 대한 불안에서도 발생하며 인간이 받아들이는 한계를 느꼈을 때에도 불안을 느낀다. 인간의 욕구·욕망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모습은 긴장된 상태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의 제자인 메트로 도스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가꾸어 가는 행복은 외부의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행복보다 훨씬 값지다'⁴⁾라고 하였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정신적인 만족에서 오는 행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현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성을 희화적으로 표

3)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자 하는 바람, 또한 그러한 마음 채우고자 하는 마음. 남영신 엮음, 『국어대사전』, 성인당, 2003.

4) 쇼펜하우에르저, 김학희 역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국문사, 1988, p8

현하고자 하였다. 인체를 단순하게 하여 인형적으로 조형화 한 것은 사람과 친근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어릴 적 가지고 있었던 물건중의 하나이며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욕구와 욕망의 형성과 실현을 '욕심(wanting mind)'으로 통합하여 부른다. 인간에게 욕심은 마음이 구체적 관계 맺음에 대한 관심(關心: interest)으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 인간이 관계를 맺고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갖는 욕심에는 물질욕, 인륜욕, 초월욕으로 구분될 수 있다.⁵⁾ 이중에서 물질욕은 현대인에게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쉼 없이 앞으로만 향한다. 이러한 것은 밖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으나 대부분 본능, 즉 욕망에서 비롯된다. 결국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즉 원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 만족의 상태를 얻고자 함이다.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본인의 작품에서는 인체의 단순화와 과장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끌어지면서도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과 한 단계 한 단계 희망을 찾아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 인간은 걸기를 통해서 생각을 얻고, 자신들의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한계를 느껴 욕심을 잠재우고자 하는 모습, 쉬면서도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알아버린 자신을 마음의 집 속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과 기둥에 매달린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5) 최봉영, 『주체와 욕망』, 사계절 출판사, 2000, p. 103.

2. 작품 표현 방법

인체는 원시미술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탐구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작품의 생명력은 인간의 육체로부터 시작되어 경험하고 느끼며 표현되어져 왔다. 사람들은 인체란 영혼을 내포(內包)하고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 여긴다.

르네 위그(Rene Huyghe ; 1906. 5.3.~)는 '육체는 매순간 영혼의 움직임을 근육 속에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많은 다양한 내면 감정을 몸짓을 통해 외적 모습으로 표현하여 나타낸다. 즉 인체는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관계'⁶⁾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 따른 내면의 감정은 인체 형상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표현된 인체 형상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기에 인체는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재현(再現)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추구하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의 인체 표현보다는 작가의 생각이나 관념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조각으로 인체가 변형(變形)⁷⁾ 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인체가 비재현적 경향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욕망·욕구로

6) Rene Huyghe,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열화당, 1981, p. 40.

7) 수잔. k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 (고려원, 1982, p. 85) 에서 '변형은 사물과 하나의 대등한 감각 인상을 산출함으로써 어떤 형식적 재현 없이 우리가 바라는 외양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음.

인해 형성된 문화에서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 물질 만능주의 라는 사회 개념의 대두 등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의 외형적인 구조, 형식적인 구조보다는 인간의 존재나 본질에 대한 사고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작가의 독특한 세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變形)의 예술선택은 계산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주제에 대한 예술가의 정적인 태도의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결과를 가져온다.⁸⁾ 이러한 점은 본인에게 있어서도 작품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성적으로 공감되는 형태를 선택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변형의 표현방식으로는 단순화(單純化), 과장(誇張), 왜곡(歪曲), 분석(分析)·종합(綜合), 굴절(屈折)·질감, 색채에 의한 변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단순화는 형태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대상이 갖는 구성 요소들과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를 단순화시키거나 생략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단순화와 과장이라는 변형의 방법을 택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단순화를 통해 인형적으로 조형화함으로써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으며 인체의 비례·부피에 비해 가늘고 길게 하여 메마른 정서를 나타내었다. 인체의 형상이 가지는 내용을 한 상황으로 연출하여 서술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 형태적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인체의 단순화는 특정부분에서 보다 구조적 형태 자체에서

8) 최병기, 유인수 편역, 『현대 미술 구조론 1』, 1990, p. 264.

이루어지며, 그럼으로써 인체는 간결성과 명료성을 갖게 되어 본인이 의도한 바를 보다 쉽게 집약시켜준다. 또한 과장을 통한 변형은 대상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크게 확장하고 다른 부분을 짧게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을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형태와 색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체 형상에 있어서 얼굴이 정면성을 띠고 있는 것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음을 암시하며 앞만 보고 가야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얼굴의 형상은 둥글고 세부묘사는 하지 않았다. 눈의 표현에 있어서 눈동자를 돌출 시켜서 놀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었다.

인체를 조각함에 있어서 몸통부분은 약간 평면적이다. 이는 불필요한 부분의 살을 제거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부피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몸에 비해 팔은 가늘고 길며 손과 발은 크게 제작하였다. 손을 인체의 실제비례보다 크게 한 것은 움켜잡으려고 하는 모습과 이미 잡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여 인간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함이다. 발의 과장된 표현에 있어서 크게 한 것은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다른 면으로는 디디고 가야할 부분이 많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맨발의 표현은 한 발 한 발 땅에 디딜 때의 느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즉 현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현대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심상을 단순화와 과장을 이용해서 희화적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어울리게 채색은 밝은 계통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색채들은 형태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무디게 할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날카로운 색은 날카로운 형태에 잘 어울리

고, 부드럽고 깊은 색은 둥근 형태에서 자기 개성을 잘 드러낸다⁹⁾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색채와 형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색채를 봄으로써 느끼는 감정, 즉 색채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본인의 작품에서 형태들은 날카로운 형태보다는 둥근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밝은 채색으로 하였다. 주로 사용한 색은 명확한 색채라기보다 파스텔 톤의 은은한 색을 이용하여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나무결을 살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색채가 가지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1]에서 무지개 색¹⁰⁾을 나무 채색한 것은 희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작품2]에서 인체의 상위부분에 노란색¹¹⁾을 채색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풍요와 환희¹²⁾라는 의미와 확산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면의 하위부분에 녹색¹³⁾으로 채색함으로써 안정과 정지의 의미를 주고자 하였다.

9)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미술진서, 1991, p. 59.

10) 정여주의 『만다라 미술치료』, 학지사, 2003.

무지개색: 신과 인간의 연결, 남성과 여성적 원리의 성스러운 결합, 태양으로의 복귀를 알림, 생산력, 가치로운 것, 원형적 부모, 탄생, 전체성, 개별화 목표, 인성의 새로운 탄생, 어린이의 내적 상처를 치유.

11)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미술진서, 1991, p. 77.에서 노란색의 첫 번째 운동인 인간으로 향한 지향성은 끈질기게 증진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인 한계의 초월과 힘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작용도 무의식적으로 대상을 향해 돌진하고 아무런 표적도 없이 사방으로 발산하는 물질적 힘의 성질과 유사하다. 인간에게 불안감을 주고, 흥분시킨다.

12) 전개서, p. 53.에서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등이 '환희와 풍요'라는 관념을 불러 일으켜 표상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13) 전개서, p. 80.에서 녹색은 존재하는 모든 색 중에 가장 평온한 색이다. 그것은 어느쪽을 향해 운동하지 않으며, 기쁨과 슬픔, 정열 등을 결코 반영하지 않으며, 그 무엇을 요구한다든가 어디로 불러내지도 않는다. 피곤한 인간과 심성에 쾌적하게 작용하지만, 휴식이 시간이 지나가면 쉽게 지루해 질 성질의 것이다.

[작품5]에서 사용된 녹색은 피곤한 인간과 심성에 쾌적하게 작용하며 엄숙, 사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형상이 녹색에 점점 물들어 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표현하였다.

2) 재료적 요소

나무는 자연의 상징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무는 우주의 생명을 상징하며 그것은 생성과 조화, 성장의 과정을 상징한다. 또한 나무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명의 성장을 상징하고, 따라서 불멸성을 상징하고 있다.

나무는 온화한 해에는 구김살 없이 나이테를 형성하고, 차가운 기후의 해에는 단단한 테를 그려 춘하추동의 흔적을 남기면서 자라온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수많은 면과 변화가 풍부한 무늬, 나이테의 폭과 색의 차이에 많은 세월의 풍설을 지나온 나무의 삶이 살아 새겨져, 보는 이로 하여금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나무가 가진 의미와 특성은 본인의 작품에서 인체형상을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제작방법에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파내는 방법과 몇 개의 부재를 맞추어서 파내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의 덩어리에서 파내는 방법은 기본이 되는 목재의 크기에 제약이 있어 큰 것이나 상하좌우로 확대하는 작품제작은 불가능하다. 조화시켜 파내는 방법은 필요한 형으로 맞추어서 접합하면 전개는 자유롭지만 나무 조합의 다루는 방법이나 강도 등 높은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¹⁴⁾

14) 김미옥, 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도서출판그루, 2000, p.85.

본인은 한 덩어리의 나무에서 조금씩 깎아내어 하나의 형상을 얻고자하였고, 부분적으로 나무를 접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직접적 금속조각이나 주물조각에서 느낄 수 있는 우연의 효과라든가 자연 발생적인 형태미가 적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3. 작품분석



【작품 1】 구름다리, 미송, 티크, 가변설치, 2002

【작품 1】 구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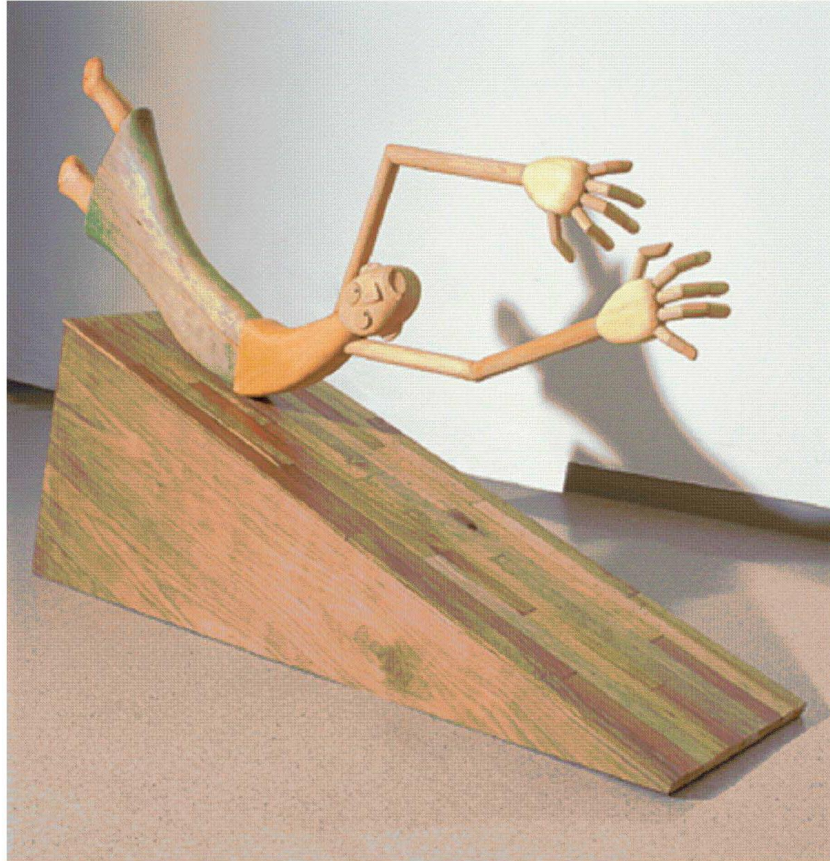
제작연도 : 2002

재 료 : 미송, 티크

크 기 : 가변설치

제작방법 : 사람의 형상은 나무를 부분적으로 조각해서 접합하였다. 작품을 연
마 후 기름을 먹였다. 나무 환봉에 유화물감으로 채색하고 낚시줄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무지개 색깔로 나무 환봉에 얇게 채색을 한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희망,
이상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런 희망을 안고 인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한 단
계씩 이겨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손으로 매달려 있으며 다른 한손은
긴장을 하고 있다. 끝이 어디인지,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인물은 과연 어디로 향하
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인 면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2】 미끄러지기, 미송, 티크, 175×45×115(cm), 2003

【작품 2】 미끄러지기

제작연도 : 2003

재 료 : 미송, 티크

크 기 : 175×45×115(cm)

제작방법 : 인물의 형상은 나무를 부분적으로 조각해서 접합하였다. 작품을 연마해서 유화물감으로 채색 후 기름을 먹였다. 밑의 마루는 압축합판으로 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나무 조각을 붙였고, 옆부분은 무늬목으로 붙였다. 그리고 왁스로 마무리하였다.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넘쳐나는 정보홍수 속에서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잡고 싶어 하는 충동이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에 항상 불안하다. 미끌어지면서 까지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체의 손과 팔을 강조하여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작품 3】 부여잡기, 미숧, 90×30×173(cm), 2003

【작품 3】 부여잡기

제작연도 : 2003

재 료 : 미송

크 기 : 90×30×173(cm)

제작방법 : 인물의 형상을 조각한 후 기둥과 접합하였다. 인물의 형상은 연마하여 유화물감으로 얇게 채색한 후 기름을 먹였다. 기둥과 받침은 연마 후 오일 스테인으로 채색하였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극한 상황에 도달한 인간의 심리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걷기, 월넛, 미송, 140×20×117(cm), 2002

【작품 4】 걷기

제작연도 : 2002

재 료 : 월넛, 미송

크 기 : 140×20×117(cm)

제작방법 : 인물의 형상을 조각한 후 부분적으로 연마하였다. 그 후 기름을 먹였다. 밑의 받침을 제작한 후 연마하여 오일 스테인으로 채색하고 왁스로 마무리하였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움직이는 인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루소는 “걸기를 소박함의 연습이자 사색의 방식으로 그린다”라고 하였다. 이는 걸기를 하면서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걸기를 반복하면서 사색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5】 바라보기, 미송, 70×16×61(cm), 2002

【작품 5】 바라보기

재 료 :미송

크 기 : 70×16×61(cm)

제작방법 : 인물의 형상은 조각 후 연마하여 유화물감으로 채색하였다. 밑의 받침은 제작 후 연마하여 오일 스테인으로 채색하였다.

앞을 바라보며 단아하게 서있는 여인의 형상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상을 표현하려는 의도이다. 녹색에 점차적으로 물들어 가는 것은 자연환경에 흡수되어 정화되고 자신의 욕심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조형화 하였다.



【작품 6】 설까말까, 미송, 30×15×35(cm), 2003

【작품 6】 실까말까

제작연도 : 2003

재 료 : 미송

크 기 : 30×15×35(cm)

제작방법 : 인물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조각·조립·연마 후 기름을 먹였다. 밑의 받침은 제작한 후 연마하여 오일 스테인으로 채색한 후 왁스로 마무리하였다.

인간은 쉬면서 재충전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편하게 쉴 수 없다. 기계 문명을 발달시켜서 시간의 여유를 얻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시간이란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욕망에서 비롯된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손과 발의 긴장과 눈의 시선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 7】 내안의 집, 가령, 45×25×78(cm), 2002

【작품 7】 내안의 집

제작연도 : 2002

재 료 : 가령

크 기 : 45×25×78(cm)

제작방법 : 인물의 형상을 조각한 후 연마하고 기름을 먹였다. 집의 모양을 만든 후 인물을 그 안에 넣어서 고정시켰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우리들의 욕망은 허망함을 알 수 있다. 팔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부여잡기를 하지만 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이고 자신의 마음 안에 지은 집 속에 가두게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우리는 예술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보고 예술을 통해 자기의 독특한 감정들을 전달한다. 본인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현대의 사회, 문화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본인의 작품에서는 회화적(戲畵的)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인간의 정서에 풍요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고, 또한 사회적 현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이 존재하는 한없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를 넘어선 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의 보다 나은 상태는 정신적 풍요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물질적 만족의 상태로 흘러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인 불안, 소유, 희망 등을 단순화와 과장된 인체의 형상을 통해서 조형화 하였다.

인간의 마음에 바탕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만족을 얻으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본인 또한 내 안에 존재하는 욕망·욕구로부터 시작된 삶이라고 보며, 본인에게 있어서 조형 활동의 과정은 마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무를 깎아서 이루어내는 형상처럼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의 과정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아 작품의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김혜련,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양건열 편역, 『예술 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미진사, 1990.
- 배영기, 『인간에 관한 종합적 이해』, 세화출판, 1990.
- 최봉영, 『주체와 욕망』, 사계절 출판사, 2000.
- 칸딘스키, 권영필 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91
- 정여주, 『만다라와 미술치료』, 학지사, 2003.
- 최병기, 유인수 편역 『현대 미술 구조론 1』 서울;송례문, 1990.
- 레베카 솔닛 지음, 김정아 옮김, 『걸기의 역사』, 믿음사, 2003.
- 쇼펜하우에르 저, 김학회 역,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국문사, 1988.
- 김미옥, 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도서출판그루, 2000.
- Rene Huyghe,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81.
- 박용숙, 『현대 미술의 반성적 이해』, 집문당, 1996.

ABSTRACT

A Study on Comic Expression of a Simple Human Body

Yun, Hyo-sil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man is the subject of endlessly feeling and longing for desires through out living and tells a mental image possessed by the man in a set situation.

The reason to choose human body is because the subject of desires is a man and the man pursues freedom from the desires. Because what people saw and felt, namely, obtained by experiences are revealed in conscious or unconscious acts, it's known that human body and mind are in one.

Because simplification contains clarification and conciseness among ways of transformation, it intensifies an intention. What made in doll-like plastic forms through simplifying human body are comically expressed mental images of modern men experienced in real life of

societ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based on the works.

In the first introduction chapter, it's submitted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e study, and what would be studied, which are to be shown through the works.

In the 2nd main subject chapter, it's stated on how to decide the theme and motives, constitutions of works, and found out human desires. It's also studied cases of artists who would like to show meanings of transformation of human body through simplifying human body and discussed about expressive methods of works constructed based on that.

In the third conclusion chapter, it's concluded the study and stated problems when constructing works and direction with will for future works.